

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정책연구과제명	국내 의료관련감염 발생현황 조사 매뉴얼 개발 및 시범조사	연구기관/책임연구원	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/김미나
부서/과제담당관	의료감염관리과/이형민	담당공무원	구현숙
연구 방식	1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위탁형 2.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연구형 3.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문형		
연구자 선정방법	1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반경쟁입찰 2.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의계약		
연구 기간	2018.03.20 - 2019.03.19.(12개월)		
연구 결과	<p>이 연구는 다제내성균과 CDI 감염의 노출부담과 감염부담을 국내 최초로 검사실기반감시를 실시하였다. 미국 CDC 감시방법을 참고하여 비교 간으한 자료를 산출하였다. 다제내성균감염에 대한 검사실기반감시에서 MRSA, VRE, CRE, MRAB, MRPA의 원내획득률은 69.4%, 78.3%, 84.3%, 73.0%, 84.2%로 MRSA를 제외하면 70% 이상이었다. MRSA의 입원시 유병률도 0.25%로 가장 높아서 입원환자 1000명 중 2.5명이 MRSA를 보균하고 있어서 입원환자에서 MRSA colonization pressure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. 이는 다제내성 전파를 막기 위해 MRSA search & destroy나 선제격리의 타당성을 입증한다. VRE는 0.15, 그람음성다제내성균은 0.1미만으로 입원환자 전체에 대한 적극적 감시배양의 필요성은 낮다. 혈류감염은 모두 0.1%미만이었는데 VRE>MRSA>MRAB 순으로 VRE BSI MRSA보다 더 다빈도였지만, 입원시 유병률은 MRSA가 0.014% 수준으로 가장 다빈도의 MDRO 혈류감염이었다. BSI incidence density rate은 1000 환자일수 당 VRE가 0.139로 제일 높았고, CRE와 MRPA가 0.01과 0.025로 낮았다. MDRO BSI에서는 여전히 그람양성 알균이 그람음성간균보다 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총 299예의 CDI가 검사실적으로 진단되었고, 이중 지역사회획득이 55예(18.4%), 원내획득이 244예(81.6%)였다. 입원환자에서 지역사회획득 유병률은 0.14%, 전체 유병률은 0.76%, 외래환자유병률은 0.01%였다. CDI의 원래 정의와 달리 지역사회 획득 CDI 또한 상당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. 구미에서 지역사회획득 CDI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에서 CDI 변화추이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</p>		
평가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: 부합 · 추진방법의 적절성 : 적절함 ·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: 충실히 이행하였음 ·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: 없음 ·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<p>: 비용효과적인 시점유병률 조사를 통하여 발생률을 추정하는 방법이 이미 잘 개발되어 있으므로, 정기적인 국가 전체 시점유병률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의 표준 질지표로 활용 가능성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타사항 : 없음 		
평가자 확인	구분	평가위원	과제담당관
	성명	이진원 (서명)	이형민 (서명)
평가 보고회	개최일자	2019.3.12	장소
	참석자	서울가든호텔	
		이미경, 윤상선, 김명희 박현정	